

고대 첫 공대 총장 취임 “문-이과 통섭, 초연결 새 가치”

정진택 고려대 신입 총장

개교 이래 첫 공대 출신 주목

융복합 학문 위주 특성화 약속



정진택 고려대 신입 총장이 지난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20대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고 학과 이익을 먼저 앞세우며 내 편과 내 편을 따지는 편협한 자세로는 초연결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기 어렵다.”

고려대 개교 이래 첫 공대 출신 총장으로 주목받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취임하면서 고려대의 융·복합 교육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정 총장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로 앞서 진행된 총장 선출 선거에서 인문·사회계열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총장에 선출됐다. 고려대 이공계열 출신 총장은 전임 김병철(농학) 전 총장을 제외하고 이기수(법학), 이필상(경제), 어윤대(경영), 김정배(사학·문학), 홍일식(국문) 등 지난 20년 간 인문·사회계열 출신이 총장을 맡아왔다.

정 총장은 특히 총장 선출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이중·융합 전공 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캠퍼스를 융복합 학문 위주로 각각 특성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그리고 로봇 등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여러 학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면서 “통합과 통섭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전공과 융합전공을 활성화하고 전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교육과 입체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다학제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고,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는 실용적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 -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정 총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그야말로 격랑의 한복판에 처해 있다”며 “고려대는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고 불확실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의 등불이 되어왔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미래를 향해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창의고대(創意高大)’의 가치를 높이 세우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 동안 우리 대학들은 스스로 새 가치와 기법을 개발하기보다는 선진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에 급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추종형 모델로서는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교과과정에서부터 강의와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학사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 혁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밖에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고려대 정신이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뿌리라면서 도덕적 인재 양성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ICT 환경의 캠퍼스 구축 계획도 밝혔다.

김인 고려대 교우회 수석부회장은 “신임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 114년 역사상 최초의 공과대학 출신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대학

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구성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임명사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고대 교육의 변화를 강조한 신임 총장의 비전은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전념해달라. 진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창의성과 협업,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장은 1983년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강의해왔으며 학내에서 대외협력처장, 공과대학원장, 공과대학장 등의 보직을 맡았고 한국유체기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총장 임기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320명 신규채용

내달 원서접수... 6월 필기시험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320명을 신규채용한다. 기술직군 신규 채용 인원 중 50%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전년(530명)보다 210명(39%) 감소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 312명 ▲경력경쟁 8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97명(교육행정 263명·사서 34명) ▲기술직군 23명(공업 8명·보건 7명·시설 8명)이다.

능력중심의 고졸성공시대 구현과 우수 기능인재 조기 공직 입문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처럼 기술직군(공업·시설) 선발 예정인원의 50%(8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뽑는다.

또 소외 계층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총 선발예정인원의 7% 이상(23명),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2%(7명) 이상 각각 구분 모집한다.

올해부터 필기시험 위탁출제기관은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되고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본부에서 출제를 담당한다.

필기시험원서는 4월 15일~19일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6월 15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7일 인성·적성검사, 9월 19일 면접시험을 치르고 10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험생은 가산특전, 응시자격조건 등 이번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급여 신청하세요”

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접수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태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에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소규모태마형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올

해부터는 법정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기준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규모태마형교육여행비는 40만원으로, 수련활동비는 14만원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도 78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교육급여 지원단가도 인상하고 연 2회 지급하던 학용품비는 올해부터 연 1회 지급으로 지급 시기가 조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인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용수 기자

서울 교사 36% 고교학점제 ‘반대’

“고교학점제 따로, 대입 따로” 보완 요구

서울시교육청, 여건 조성 지원키로 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제 개편 시급

대학처럼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듣고 졸업 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서울 고교 교사 36%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6%로 이보다 적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본격 추진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시행에 앞서 기반 조성에 나선다.

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11월 교사 1461명이 응답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73.4%)는 찬성했고,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한다는 교사(64.4%)도 과반수가 넘었다.

하지만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의 다음 단계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반대(36.1%)가 찬성(25.9%)보다 많았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38.0%였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교사도 상당수였다. 고교학점제를 어느 정도 안다거나 잘 안다는 응답이 65.9%로 다수였지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자도 34%나 됐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는 대학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고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종로학원, 첫 모평 후 ‘학년별 수능·입시 전략’

대학입시전문 교육기관 종로학원은 오는 7일 고123 모두 첫 모의고사가 실시됨에 따라, 시험 직후인 9일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123 학년별 다른 수능, 입시 특별전략 설명회’를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시 벨류호텔 세종시티에서 열린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에서 참석자들과 고교학점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교육부

서울형 답변에서 한 교사는 “학생들은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학교가 어떻게 변하든 그 변화가 수능만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을 본질로 이끌 수 있겠느냐”며 “결국 성적으로 등급을 계산한다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아 1등급이 많이 발생하는 과목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교사도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히 참여했다더라도 대학 합격과 연계가 안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택교육과정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의 수능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은 수능 출제범위에 맞춰 수업이

개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서울형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인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은 학교가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학생들 수요조사를 통해 과목 개설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형 선택 강좌’도 운영한다. 극소수 학생이 선택해 개설되기 힘든 과목을 교육청 내에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올해 이를 위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용수 기자

향력 분석 ▲각 학년별 각각 다른 수능체제가 몰고 올 수험생 큰 틀의 움직임 변화 ▲수능체제 변화가 가지고 올 학습전략, 지원성향 변화 ▲각 학년별 달라지는 입시체제, 내신, 수능, 논술 학년별 학습계획도 수정 등이 공개된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사전 예약 후 설명회 실제 참석자에 한해 당일 설명회 자료집이 배부된다.

/한용수 기자